INSIDE 2015. vol. 119

11

당신의 미래를 엽니다

观 61

CONTENTS

11Nov - 12 Dec 2015 | vol.119



١N

In Newsquare

- 초가을, 풍성한 한가위 잔치 _ YTN볼빅 여자오픈 I **허재원** 04 '서울에서 제주까지 YTN은 하나다' I **김웅래** 06_
 - 'YTN 대표 앱'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I 홍보팀 08

Exclusive Now

- '시한폭탄을 달고 나는 헬기' 여전한 안전 불감증 I **강진원** 10
 - '정의로운 얼음판'을 꿈꾸며··· I **조은지** 12

YTN People's

기자가 데이터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I 함형건 14

이 방송 궁금하다

 YTN FM 주말 News & Music
 1

 의미와 재미, 두 마리 토끼를 잡다 | **김우성**

Worldwide YTN

- 꼬르헨띠노, 반세기의 신화 I **송태엽** 18
- '신의 영혼', 오로라를 만나다 I **차현주** 20

지국은 지금

일당백 강원도의 カ! l 홍도영 22

오피니언 리더, YTN을 말하다 _ KCT 성기현 대표이사

Change or Be Changed I 성기현 24

부서탐방 _ 기술기획팀

기획과 실전의 밸런스를 고민한다 | 박형일 26

이달의 자랑스러운 YTN인 상

9, 10월의 자랑스러운 YTN인 상 27

SIDE

홍경한의 아트스퀘어 _ 판화가 김승연

28 홍경한 | 김승연의 야경, 익숙한 것의 낯섦 _ 일상의 재해석

앵커의 변신 _ 이광연 앵커

-30 신보경 I 르네상스 시대, 당당한 삶을 개척한 여인처럼

YTN 달인들 _ 보도국 CG팀 오재영 차장

32 **신보경** I 테니스는 나의 힘!!

최광희의 News In Cinema _ 특종 량첸 살인기

34 **최광희** I 〈특종 : 량첸 살인기〉로 보는 특종의 심리학

포토에세이 20 · 21

- 36 김정일 | 기억풍경 신당동
- 37 **최민호** I 찰라적인 가리봉동 낭만

YTN 이모저모

38 협약식, MOU 등 / 게시판





표지 **김승연 作〈Night Landscape〉**

메조틴트 연작 〈Street landscape〉와 〈Night landscape〉를 통해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판화가 김승연은 일상에서 쉽게 마주하는 거리나 도시의 밤풍경 등 주변에서 흔히 접하는 일상적인 것들과 익명적인 것들을 특유의 섬세하면서도 서정적인 방식으로 작품에 담아낸다.

'YTN 서울타워'를 옮긴 작품을 비롯해 일본의 거리풍경을 묘사한 작품과 같이 그의 그림 전체를 지배하는, 어둠 속에서 뽀얗게 피어나는 안개 같은 이미지들은 명징하게 규정되는 문명의 화려함이 아닌 도시의 망실된 이미지를 소환한다.

발행인 조준희 편집장 최재용(홍보·시청자팀) (121-904)서울시 마포구 상암산로76 YTN 뉴스퀘어 TEL 02,398,8000 제보 02,398,8585 디자인·인쇄제작 아이아트플러스 02,2272,9807

左叶竟, 景付赴 赴州别 祉剂 YTN-볼빅 여자오픈

국외파 스타 대거 출격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한국은 아직도 덥네요" 모두 반가운 얼굴들이다. 올해 시즌부터 무대를 미국으로 옮겨 데뷔 시즌에 두 번의 우승을 한 김세영은 여전히 밝 고, 자신감이 넘쳤다. 국내에서 최고 스타의 자리를 미련 없이 내려놓고 일본 도전을 선언했던 김하늘의 미소도 여 전했다. 적응에 실패하며 최악의 시즌을 보냈지만, 귀국 직 전 일본 무대 첫 승이라는 큰 선물을 안고 돌아온 직후였

> 다. 국내 대회만 출전하면 유독 강했던 장하나는 더욱 당 당했다. 미국 무대에서

> > 우승이 없는 아쉬움을

국내 팬 앞에서 훌훌 털어버리겠다고 했다.

최운정의 옆엔 다시 아버지 최지연 씨가 있었다. 데뷔 8년 만에 감격의 첫 우승을 차지한 뒤 아버지를 편히 쉬게 해드 리고 싶다며 눈물지었는데, 그래도 아버지와의 호흡이 최고 였단다. 에비앙 챔피언십에서 마지막까지 우승 경쟁을 펼쳤 던 이미향은 변함없이 밝았다. 스승님이 대회장을 찾아주기 로 해서 든든하다며 까르르 웃었다.

LPGA 투어가 휴식기에 접어든 시점, 세계 무대를 주름잡 는 우리나라 선수들은 추석 연휴를 맞아 대거 귀국했다. 모 처럼 친지와 지인들을 만났고, 아픈 몸을 치료했다. 10월부 터는 아시아 지역에서 5주 연속 대회를 여는 '아시안 스윙' 이 예정돼 있었다. 컨디션을 조절하고 경기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 또 모처럼 국내 팬들에게 향상된 모습을 선보이기 위 📉 승을 돕는 것처럼 진행됐다. 강력한 라이벌 김세영은 둘째 해 'YTN·볼빅 여자오픈'은 더없이 좋은 기회였다.

그렇게 김세영과 장하나, 최운정과 이미향, 김하늘, 백규정, 투플 보기'를 범했다. 마지막 날에는 다소 어려워진 핀 위치 이일희, 허미정 등 미국과 일본 무대에서 활약하는 국외파 선수들이 대거 출전하는 최고의 라인업이 완성됐다. 추석 연 휴를 앞둔 골프팬에게 더없이 풍성한 '한가위 선물'이었다.

화려한 버디 쇼, 홀인원 잔치

출전 선수들의 화려한 면답게 대회 첫날부터 화려한 '굿샷 의 향연'이 펼쳐졌다. 홀인원 경품이 걸린 두 개의 파3홀에 서 첫날부터 홀인원이 나오며 갤러리들을 흥분시켰다. 올 시즌 우승 없이 부진에 빠져있던 양수진이 고급 외제차의 행운을 안으며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다. 이에 앞서 이으뜸 은 12번 홀에서 홀인원을 기록하며 3천만 원 상당의 자전

대회장인 레이크우드 골프장은 거리가 먼 대신 페어웨이의 폭이 넓었다. 내로라하는 장타자들의 시원한 장타쇼가 펼 쳐졌다. 화창한 날씨에 바람도 거의 없었다. 대회 개막을 축복이라도 하듯 완벽한 날씨와 코스 컨디션 아래 선수들 은 너도나도 버디를 잡아냈다. 1라운드를 마치고 언더파를 기록한 선수가 78명. 우승자의 예측은 마지막 날 마지막 순

날 10번 홀에서 무려 9타 만에 홀아웃 하며 보기 드문 '퀸 때문에 많은 선수들이 자멸하며 장하나 추격에 실패했다. 장하나가 2, 3번 홀 연속 보기를 범했지만 박성현도 1, 2번 홀에서 모두 타수를 잃으며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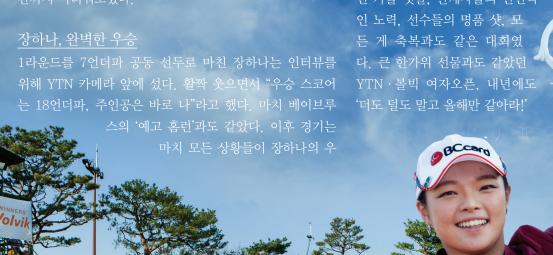
결국 장하나는 최종 스코어 16언더파로 4타 차 우승을 확 정했다. 올해 시즌 미국 무대에서 아직 우승이 없지만 국내 대회에서 유독 강한 기분 좋은 징크스를 이어갔다. 국내 대 회 5번 출전에 우승 2번, 준우승 1번, 3위와 4위 각각 1번 이었다. 5번의 대회에서 챙긴 상금만 4억 원에 육박한다. KLPGA 관계자는 장하나를 보면서 "출가한 딸이 친정에 올 때마다 한아름 반찬을 챙겨가는 기분"이란다.

선수도, 팬도, 관계자도, 언론도 모두 기분 좋은 명품 대회

골프라는 종목을 담당하면서 1년 내내 참 많은 대회를 취재 했다. 그런데 YTN · 볼빅 여자오픈만큼 대회 기간 내내 화 창한 날씨, 수많은 갤러리와 함께 대회가 순 조롭게 치러진 적은 없는 것 같다. 서울

WINNER

근교의 깔끔한 골프장, 달콤하기까지 했 던 가을 햇살, 관계자들의 헌신적 인 노력, 선수들의 명품 샷, 모 든 게 축복과도 같은 대회였 다. 큰 한가위 선물과도 같았던 YTN · 볼빅 여자오픈, 내년에도







김웅래 PD | 보도국 편집1부

"두두두두둥~ Y~TN!"

타사의 기를 팍팍 죽이는 북소리가 농협대학 운동장을 가득 이제 경품 추첨 시간. 다들 이 순간만 기다렸을지 모르겠다. 채웠다. 경품이 어마어마했다. 1등은 노트북이었고, 태블릿PC투

우리의 응원은 꽤 조직적이었다. 여기저기 흩어져 소리만 지르는 타사와는 비교가 안 됐다. 늦은 밤까지 응원 도구 만들고, 콘티를 짠 응원단의 노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 다. 역시 뭐든지 준비한 만큼 얻는 법이다. ^^

체육대회 준비 내내 가장 큰 걱정은 '많이 안 오면 어떻게 하지?'였다. 그런데 기우였다. 텐트 두 동이 꽉 찬 건 우리 뿐이었다. 수습 후배들부터 해직 선배들까지 모두 한자리에 모였다. '서울에서 제주까지 YTN은 하나다'라는 응원 문구 가 어색하지 않았다.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사장께서 등번호 24번의 축구 유니폼을 입고 현장을 찾으셨다. 보도본부장 이하 회사 간부들도 동행했다.

'무언가 낯선, 어디서 겪어본 듯한' 후배의 표현이다. 더 정확한 표현을 찾을 수가 없을 정도였다. 워낙 오랜만에 보는 풍경이라 낯설었지만, 그렇다고 영 어색하지도 않았다. 언젠가 본 적이 있는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사장부터 수습 후배까지 하나가 돼 'YTN은 하나'를 외쳤다.

오전 8시부터 시작된 대회가 막바지로 향했다. 이제 시상식. 수 있지 않을까? 응원만큼 성적도 그리 나쁘지는 않았다. 가장 중요한 경기인 축구에서 준우승했고, 여자 발야구는 상대편의 온갖 편법을

누르고 우승을 차지했다. 물론 응원상도 우리 차지였다.

경품이 어마어마했다. 1등은 노트북이었고, 태블릿PC부터 어린이 자전거까지 '돈 되는' 경품들이 모두의 마음을 흔들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우리 YTN이 싹 쓸었다. 사람이 워낙 많아 뽑는 족족 YTN 가족 이름이 호명됐다. 노트북도, 태블릿PC도, 자전거도 다 가져왔다. 역시 '사람 수'가 많아야 한다.

이제 슬슬 배가 고팠다. 다들 일사불란(?)하게 예약해둔 근처 식당으로 이동했다. 꽤 넓은 홀을 빌렸는데 꽉 들어찼다. 밥값 걱정이 머리를 스치는 순간, 회사에서 내겠다는 '낭보'를 듣고 마음 편히 시켰다. 회사에서 준비해준 경품 덕에 저녁 식사 자리는 더욱 풍성해졌다. 오랜만에 모두 함께 얼굴을 맞대고 잔을 기울였고, 이렇게 2015 방송기자연합회 체육대회의 모든 순서가 마무리됐다.

행사를 마치고 뒷정리를 하는데 뒤늦게 취기가 올랐다. 만 감이 교차했다.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모두가 마찬가지였 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원래 YTN은 서울에서 제주까지 하 나였고, 앞으로도 그래야 한다. 안팎으로 힘든 시기이지만, 이 넘치는 에너지를 한 데 모을 수만 있다면 충분히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



체육대회 내내 정말 보고 싶었던 선배가 있습니다. 제주 고재형 선배입니다. 지금 힘겹게 병마와 싸우고 있습니다. 꼭 이겨내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모두의 마음을 담아 대회 상금과 사내 격려금은 고재형 선배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NEWS



LIVE OYTN

'제보 허브' 꿈꾸는 YTN NEWS 앱

스마트폰을 통해 24시간 뉴스채널 YTN의 뉴스를 언제 어디서나 접할 수 있는 YTN 대표 앱. YTN NEWS 앱은 YTN의 모든 뉴스를 기사 및 VOD의 형태로 제공한다.

YTN 실시간 방송도 무료로 볼 수 있고, 긴급뉴스는 팝업으로 알려준다.

국민 고충 처리 프로그램 '국민신문고'와 작지만 강한 기업을 발굴하는 '강소기업이 힘!이 다' 같은 YTN 개국 20주년 특별 기획 프로그램을 볼 수 있다.

나아가 실생활에 유용한 생활정보를 전하는 '원 포인트 생활상식', 우리 역사 속 일화를 소개하는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 낱말 속 숨겨진 사연을 소개하는 '재미있는 낱말풀이'. 행복한 백세 시대를 위한 '오늘의 건강' 등 짧고도 유익한 YTN의 이른바 '4종 세트' 프로 그램을 언제 어디서나 접할 수 있다.

YTN NEWS 앱은 여기에 더해 '세계 최강 제보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무엇보다 제보하 기가 아주 쉽다. 버튼 몇 번만 누르면 된다. 수신된 제보 영상은 데스킹 과정을 거쳐 보기 편하게 앱에 배열된다. 조회 수나 댓글 수, '좋아요' 개수에 따라 순위도 매겨 놓았다.

1등을 한 제보자에게는 매주 소정의 모바일 상품권이 증정된다. 제보 영상을 보낸 사람 은 본인 희망에 따라 'YTN 모바일 저널리스트'(MJ)가 될 수 있다. 참여 횟수나 수준이 올 라갈수록 MJ의 등급이 상승한다.등급이 올라가면 그에 따라 권한도 생긴다. 이렇게 해서 일종의 YTN 제보 커뮤니티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시스템으로 개발돼 있다. 지난 7월에는 'YTN 대학생 MJ' 1기를 선발했다. 젊은 뉴스 소비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 을 위해서다. 오대양 육대주를 누비는 YTN 대학생 MJ들이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보내준





'비장의 무기' 블랙박스TV 앱

블랙박스TV앱은 'beyond YTN'을 꿈꾼다.

블랙박스TV 앱은 뉴스전문미디어 YTN이 내놓은 새로운 무기다. 차량 블랙박스 카메라를 통해 포착된 사건사고, 돌발상황 등 세상만사가 담겨 있다. 임의로 촬영을 하게 되는 블랙박스의 특성 때문에 언제나 예측불허의 상황이 담긴다. 지난달에 론칭해 아직 베타버전 수준이지만 조만간 마니아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한다.



재외동포를 위한 24시간 뉴스 채널 YTN 월드가 내놓은 해외 정보 전용 앱.

'해외 스마트 리포터'들이 보내는 글과 사진은 한 건에 천 원의 원고료로 환산돼

유엔난민기구(UNHCR)에 기부된다.

기고를 통해 난민 구호활동에 자동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1석 2조' 앱이다.

LIVE O YTN science Q 검색

YTN science

'과학과 교육 콘텐츠의 중심' YTN 사이언스 앱

YTN 과학전문 채널 YTN 사이언스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앱. 생활 과학 이슈를 알기 쉽게 전달해주는 '카드뉴스', 그날그날의 과학뉴스를 접할 수 있다. 나아가 TED 형식의 과학강연 프로그램 '이매진', 아이와 학부모의 수학 고민을 해결해 주는 '수다학', 중학생 고품격 두뇌 배틀 '킹왕짱' 같은 YTN 사이언스 제작프로그램이 담겨 있다. 학생이나 교육 현장의 선생님들에게 유용한 '보물'과 같은 앱이다.

김성우 리포터 💌 정호현 리포터 🙇

YTN 해외리포터 신청안내

OO YTN WORLD

YTN NEWS

수를 합산해 종합평가



"그래, 한번 끝을 보자"

"일단 교체했으니까…." 주력 헬기의 엔진이 폭발한 지 반 년이 지난 시점. 말끝을 흐리는 산림청 담당자의 답변은 실 망스러웠습니다. 심각성에 대한 인식도, 원인 규명 의지도 부족해 보였습니다. 동일 기종 헬기의 엔진에서 잇따라 이 상 징후가 발견된 상황. 교체가 능사는 아니었습니다. 바꿔 단 엔진에도 같은 결함이 있다면 시한폭탄을 안고 하늘을 나는 셈이니까요. 그런데도 여전한 공직자들의 안전 불감 중. "그래 한번 끝을 보자"는 오기를 품게 했습니다. 8편에 걸친 러시아산 헬기 결함 보도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말 많고 탈 많은 '불곰사업'

옛 소련 차관 일부를 현물로 받은 이른바 '불곰사업'. 저는 당시 도입한 러시아제 무기 운용 실태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러시아산 헬기에 문제가 있다더라."는 지인의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흘려서 듣지 않고 확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헬기 기종과 결함 부위 등을 파악하기 위해 민간 업체를 수소문했습니다. 모 대기업에서 들여온 러시아산 KA-32, 카모프 헬기였습니다. 해경과 산림청, 소방 등 국내에 60대 남짓 도입된 기종입니다. 하지만 어떤 부품에 문제가생겼는지,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부 보고서 입수에 착수했습니다.

단독으로 확보한 각 기관 정비 보고서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핵심 부품 인 엔진에서 잇따라 이상 징후가 발견됐습니다. 국내에 도입된 KA-32 헬기 가운데 1/6 정도 에서 문제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 했습니다.

"숨기기에 급급"

당국의 대응은 안이했습니다. 기관을 가리지 않고 결함이 발견됐지만, 범정부 차원의 대책은 없었습니다. 원인 규명 작업도 제자리걸음이었습니다. 제작사에 직접 대책을 요구하려는 노력 역시 부족했습니다. 운용기관모두 국내 대리점인 모 대기업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동일기종 헬기를 가장 많이 보유한 산림청은 특히 문제였습니다. 엔진이 폭발했는데도 부품만 바꿔 운항을 계속했습니다. 기종 전체의 운용을 중지하고 긴급 점검에 착수한 건

덕 달 뒤였습니다. 자체 결함이 있을지 모를 엔진을 달고 하늘을 날아다닌 셈입니다. 이를 지적하는 YTN 보도가 나오자 결함 규모 축소 등 거짓 해명자료까지 내놨습니다. 부품 수급과 정비 체계 역시 문제였습니다. 특정 대기업이 사실상 독점하면서 여러 폐해가 불거지고 있었습니다. 정비대금 과다 청구와 부품 수급 지연 문제 등이 확인됐습니다. 예산을 절감하고 원활한 부품 수급을 위해선 업체 다변화가 필요했습니다

"늦었지만…"

YTN 보도 이후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우선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범정부 대책반이 구성됐습니다. 국내 11개 기관에는 동일 기종 헬기 긴급점검과 정비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러시아 항공당국에 헬기 안전성 확보도 공식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헬기 제작사와의 협의도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함이 발견된 엔진들은 '무상' 수리를 추진하고, 수리 중인 예비엔진은 조기에 납품받기로 했습니다. 문제가 된 엔진들은 제작사로 보내 정밀 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KA-32 기종 헬기 정비업체도 다변화하기로 했습니다. 산림청은 업체 다변화를 확정했고, 해경 등 기타 기관은 전향적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거짓 해명자료를 내놨던 산림청은 국정감사에

서 지적을 받은 뒤 기관장 차원의 유감 표 물 명과 재발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안전불감증이 결국 대형 사고로…"

세월호 참사의 아픈 교훈은 어느 덧 잊히고 있었습니다. '설마…괜 찮겠지'라는 안전 불감증은 뿌리 깊 었습니다. 취재과정 내내 느꼈던 공직자

들의 안이한 상황 인식, 문제를 숨기고, 축소하

기에 급급한 태도. 애초에 제대로 된 대응을 기대하는 건 무리였는지도 모릅니다. 이번 보도가 그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늦게나마 여러 안전 대책이 마련되는 점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취재를 함께한 이승준 선배와 후배 우철희, 취재기간 동료의 빈자리를 묵묵히 메워준 사건팀 선후배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을 저한니다



퇴근할 생각에 들떠있던 나른한 오후, 다급한 전화가 귓전 을 때렸다. 쇼트트랙 유명 남자 선수가 대표팀 막내 선수 를, 그것도 훈련 중에 주먹으로 쳤다는 내용이었다. 맞은 선수는 올해 시즌 갓 태극마크를 단 고등학생.

머리가 팽팽 돌았다. 문제가 커지겠구나. 쇼트트랙은 또 추 항 직전의 현장이었다. 선수들이 줄지어 링크를 돌았고. 추 문이구나 하는 생각들. 때린 선수는 쇼트트랙 취재할 때마 다 '멘트 자판기'처럼 얘기되는 말을 해주던 싹싹한 선수였 는데, 하는 생각까지.

주먹질은 단 한 번이었다. 조사한 빙상연맹은 '우발적'이었 다고 했다. 나만 모른 체하면 조용히 넘어갈 수도 있었다. 폭행 관련 국가대표 규정을 찾아보니 징계도 가혹했다. 평 창올림픽까지 영향이 있으려나… 따뜻한 얘기. 이기는 선 수, 기분 좋은 기사를 쓰고 싶어서 스포츠 기자가 됐는데 왜 또 이런 제보를 받았을까. 고민은 닷새간 이어졌다.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을 20일 앞둔 예민한 상황. 태극마크 빙상연맹은 선수위원회와 상벌위원회, 이사회를 거치며 한 는 남녀 8명씩 달고 있지만, 월드컵 개인전에 나가기 위해 서는 최종 선발전 '바늘구멍'을 뚫어야 했다. 곰곰이 생각 했다. 중고참 에이스 선수가 막내를 때린 건 단순 주먹질 이 아니라. 선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건이었다. 올 해 시즌 처음 태릉 밥을 먹은 고등학생은 지금 어떤 생각으 로 합숙하고 있을까. 때린 형과 눈은 마주칠까. 애써 태연 한 척할까, 감독은 방패가 되어주고 있을까. 곱씹을수록 써 야 한다는 확신이 들었다.

워낙 말 많은 동네다. 기사를 쓰려니 악명 높은(?) 파벌이 생각났고, 온갖 자극적인 양념들이 떠올랐다. 그래서 최대 해 막내를 주먹으로 쳤다.〉고. 오직 '팩트'만으로.

반응은 뜨거웠다. 빙상연맹은 '때린 건 맞다. 하지만 맞을 이 훈련이라 추월을 하면 안 되는 데 막내 선수가 개념 없이(!) 기자'야."라고 일깨워주신 선배님들 감사합니다. ♥

앞질렀다는 취지였다. 그 해명이 내 가슴에 불을 질렀다. 이 세상에 맞을 짓이란 게 진짜 있나! 흐름은 묘했다. 다른 매 체들은 빙상연맹의 해명을 충실히 실었다. 맞을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동료 기자들이, 또 빙상연맹이 야속했다.

추석 연휴 내내 부글부글 끓었다. 전과 송편을 먹고 누워있 을 때, 동영상이 '내게로 왔다', 20초 남짓한 짧은 영상, 폭 월이 있었고. 선두가 넘어졌고. 욕설을 뱉었고. 선수들이 놀라서 뒤를 돌아보는 모습까지, 주먹질의 '찰나'는 없었지 만. 영상에는 궁금했던 모든 상황이 있었다. '선두 유지훈 련'이라는 설명과 달리. 맨 앞을 달리는 선수(폭행 가해선 수)는 뒤를 끊임없이 경계하면서 막았다. 감독, 코치를 비 롯해 남녀 대표선수들 앞에서 'X발'이라고. 링크가 쩌렁쩌 렁 울리도록 욕했다. 두 가지로 끝이었다. 추석 연휴였는 데, 빨리 출근해서 기사를 쓰고 싶었다. 심장이 동동 뛰었 다. 온라인 세상의 호응은 뜨거웠고. 기자들은 침묵했다.

달을 고심했다. 폭행 선수는 올해 시즌 자격 정지, 몇 번의 월드컵시리즈와 세계선수권에 나가지 못하는 걸로 일단락 됐다. 최대 3년간 태극마크 박탈의 중징계를 막기 위해 빙 상인들이 애쓴 결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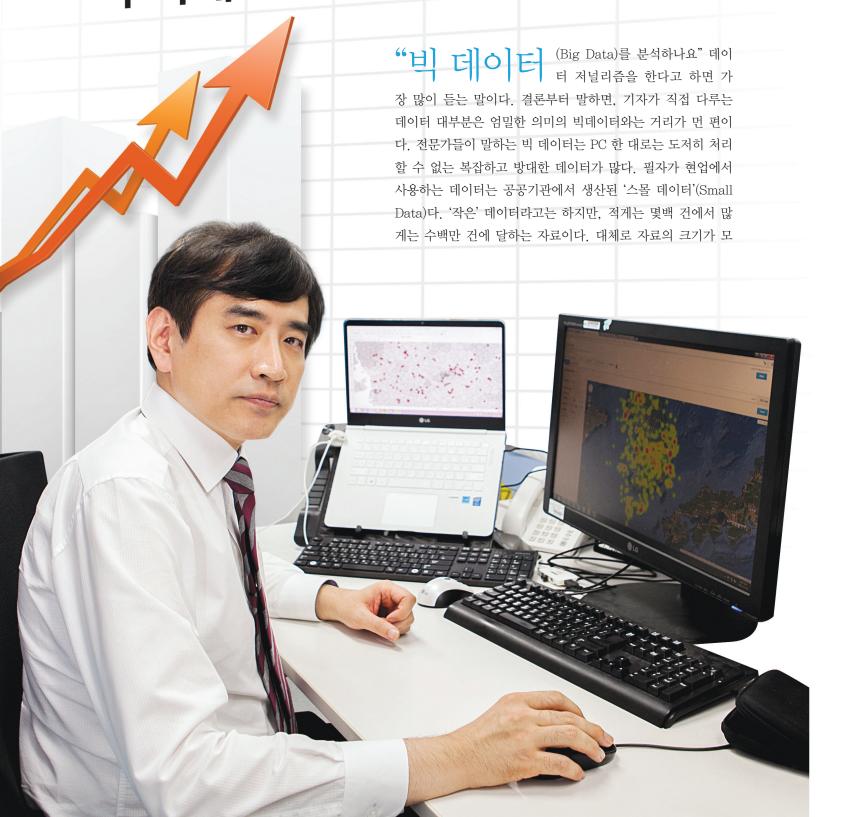
나에게도, 힘들고 괴로운 시간이었다. 전도유망한 선수의 한 시즌이 통으로 날아갔다. 연맹 사람들도, 빙상인도 나를 경계한다. 대체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조지는' 거지? 좋은 게 좋은 거잖아?

하지만 생각한다. 좋아하고 아끼니까 '조지는' 거라고. 쇼트 트랙 경기를 내내 끼고 사는 나니까 '조질 수' 있는 거라고. 한 드라이하게 썼다. 〈훈련 중에 자신을 추월한 것에 분노 또 생각한다. 선후배. 위계에 의한 폭력이 사라지기를, 폭 력은 '절대 악'이고, 이 세상에 맞을 짓이란 건 없다고.

유도 있었다.'고, 다른 매체들에 해명했다. 선두를 유지하는 PS 중심을 잃고 휘청일 때마다 "너는 '체육인'이 아닌 '체육



기자가 데이터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함께 티에 티에 티에



집단에 가깝고, 내용이 자세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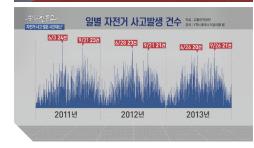
가령, 교통사고를 분석한다면, 정부가 집계해놓은 자료를 받아쓰기보다는 어떤 지역에서 발생한 개별 사고에 대한 상 세 자료를 모두 가져와 직접 문제점을 살펴보려고 한다. 상 세 데이터(Micro Data)란 사고 한 건 한 건, 장소 한 곳 한 곳에 대한 자료인데, 뉴스 소재로 가치가 크다. '내가 아침 에 마시는 한 잔의 주스'는 기삿거리가 못되지만, '전국에서 수백만 명이 마시는 주스의 소비 패턴'은 뉴스가 되는 원리 이다. 여기서 다시 특정 지역, 특정 연령대가 마시는 음료 수의 소비 취향을 골라내면, 더 자세한 뉴스가 된다. 사회

현상의 큰 그림과 작은 그림을 함 께 그려, 좀 더 정밀하고 입체적인 보도를 할 수 있다.

지난 9월 YTN '국민신문고'를 통해 급증하는 국내 자전거 사고 문제를 보도한 리포트를 보자. 데이터 저 널리즘 팀은 8,500여 건의 사고 데 이터를 국내 15.200여 곳의 위치 정보와 중첩해 분석한 결과, 60% 이상이 차도와 자전거 도로가 만나 는 교차로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밝 혀내고 이를 현장 리포트와 함께 방송했다. 좀 더 방대한 데이터를 다뤘던 2013년 12월 YTN '기사식 당' 프로그램의 '유독물 공장 지도' 보도는 전국 유독물 사업장 주변 위험 반경에 많은 보육 교육 기관 이 있다는 사실을 공간 통계로 밝 혀냈다. 시청자들이 YTN 홈페이지 의 인터랙티브 지도를 통해 자신이

사는 동네의 상황은 어떤지 살펴볼 수 있도록 유도했다. 물론 출입처 기자들이 자료를 기반으로 기획 취재를 하기는 쉽지 않다. 구체적인 분석 기법을 익히기 전에 우선 '데이터 마인드'부터 기르는 것도 방법이다. 요컨대. 출입처나 인터 넷에서 접하는 모든 데이터를 뉴스와 연결하려고 생각해보 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말한다. 차별화된 알짜 정보를 캐 기 위해서는. 평소에는 '신문용'이라며 관심을 두지 않았던 다소 복잡해 보이는 통계자료에도 눈길을 줄 필요가 있다. 방송과 신문. 인터넷이 만나는 융합의 지점에서 데이터 저 널리즘은 시작하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 기관이 발표하는 대부분 보도자료의 이면에는 기 초 정책 자료가 된 관련 공공데이터가 있다. 이를 입수해 데이터저널리즘 팀이나 전문가와 함께 분석하면 이미 나온 뉴스 기사라도 다른 각도에서 새롭게 조명할 수 있을 것이 다. 일견 진부해 보이는 소재라도 데이터로 다시 직접 분석 해보면, 기사의 금맥을 캘 수 있다. 자료는 체계적으로 축 적될 수록 가치가 늘어나는 법이다. '하루 살이' 리포트의 틀에서 반 발자국이라도 벗어난 기사를 쓰고 싶다면. 취재 분야에서 나만의 데이터를 축적해가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데이터저널리즘 팀은 보도국 기자 를 대상으로 수 차례 사내 교육을 계획하고 있다. 자료를 찾는 방법 과 함께 '스프레드시트'와 '매핑' 등 간단한 분석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 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처음 시작 할 때는 왠지 낯설고 망설여지지 만. 진입장벽만 살짝 넘으면 그 다 음은 그리 어렵지는 않다. 단기 교 육을 받고도. 기초적인 작업은 시 작할 수 있다. 아는 만큼 보이는 법 이다. 초보적인 수준이라도 데이터 를 직접 활용하는 방법을 익히면, 전에는 무심코 지나치던 출입처의 좋은 자료들이 하나둘씩 새롭게 눈 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하지만 환상은 금물이다. 기자가 데이터로 할 수 있는 일에는 명백 한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쓸만한 데이터가 많지 않다. 정부가 공개

하는 상당수 데이터는 '알맹이' 없는 자료이다. 데이터 속의 오류까지 걸러내고. 뉴스로 가공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 과 '노동'을 투입해야 할 각오도 해야 한다. 더욱이 데이터 활용이 현장 중심의 '발로 뛰는' 취재를 대체하지는 못할 것 이다. 데이터 저널리즘의 결과물 대부분은 현장 취재와 연 계할 때 그 생명력을 갖는 법이다. 이 모든 장단점을 분명 히 알고 지혜롭게 사용하는 자에게 데이터 활용 보도는 뉴 스의 경쟁력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대응은 각자의 몫이다



가족을 위한 주말 라디오

즐거운 주말 차를 타고 나들이를 떠나는 가족이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떠나는 차 안은 별장처럼, 때론 정겨운 식탁처럼 즐겁습니다. 하지만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라디 오 프로그램은 많지 않습니다. 아빠는 뉴스를 듣고. 아이는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 거나 이어폰으로 음악을 듣곤 합니다. 수도권 라디오 청취자는 이럴 때. 주저 없이 YTN News FM 94.5MHz를 선택하곤 합니다. YTN 라디오 주말 대표 프로그램 인 News & Music에서는 이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아 침 9시부터 자정까지 방송되는 News & Music에서는 시시각각 들어오는 뉴스는 물 론 다양한 음악을 접할 수 있습니다. 또 청취자의 정감 어린 문자 사연에 공감할 수 있 습니다. 방송 중 들어오는 문자 사연을 보면 남녀노소 각계각층 청취자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빠와 함께 외갓집에 가고 있어요. 아빠가 좋아하는 노래 틀어주세요. 전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여긴 호주입니다. 항상 고국 소식과 음악이 궁금한데, YTN라디오 스마트폰 앱 YES를 통해 잘 듣고 있습니다. 꼭 한국에 있는 것 같네요. 신청곡 부탁합니다."

- 10월 주말 참여 청취자 문자 사연 -

의미와 재미를 청취자 참여로 엮어내

감성적인 콘텐츠와 정보를 전달하는 콘텐츠를 함께 녹인 프로그램은 TV에서는 많이 시도됐습니다. 하지만 라디오에서는 드물었습니다. 주말 News & Music은 '뉴스'라는 '의미'와 '음악'이라는 '재미'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두 콘텐츠를 이어주는 것은 청취자들의 참여입니다. 문자 #0945와 YTN라디오 앱인 'YES'로 사연과 신청곡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한 곡의 음악과, 간추린 뉴스의 닮은 점은 짧은 길이로 정해진 시간 안에 '공감'을 이 끌어내는 것입니다. News & Music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감성, 오락의 요소를 다 채워주는 대표적인 '공감' 콘텐츠가 됐습니다.



News & Music을 만드는 사람들

주말에도 YTN 라디오 스튜디오는 긴장의 On Air 불빛을 지키며 방송을 꾸려가는 사람 들로 생기가 넘칩니다. 먼저 주말 아침을 깨워주는 조진성 아나운서, 조 아나운서는 스포츠 캐스터의 내공과 톡톡 튀는 멘트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 에도 늘 채널 얼음!"이라는 말을 달고 살아 '얼음남'으로 통합니다. 하지만 감성적 음악과 사연에는 한 없이 부드러워지는 남자입니다.

주말 저녁은 때로는 아늑하고 때로는 쓸쓸합니다. 이 시간을 책임지는 저녁 전담 박지혜 아나운서. 바다처럼 넓고 포근한 그녀의 목소리는 주말 저녁 모든 사연을 사 랑스럽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김성은 아나운서를 비롯한 YTN 라디오의 베테랑 아나운서들이 오랜 경험과 뛰

어난 뉴스 전달력으로 오후 시간 News & Music의 감칠맛을 살립니다.

이제부터 구락 이동시간은 가속 모두 FM 94.5! News & Music과 올카게!

卫飞机工19人19人

송태엽 팀장 | 글로벌뉴스센터 해외방송팀

9월 9일 밤 인천에서 출발해 부에노스아이레스 공항에 도착하는 데 40여 시간이 걸렸다. 이스탄불에서 갈아 단 비행기는 간이역에 들르듯 상파울루에서 1시간쯤 머물기도 했다. 공중에서 보낸 시간만 37시간. 아르혠 티나는 좀 먼 나라였다.

첫 한인 이민자 13세대 78명은 1965년 8월 17일 부산항을 출발했다. 네덜란드 화물선 보이스벤(Voissvein) 호가 부에노 스아이레스 항에 도착한 것은 10월 14일, 무려 두 달 만이었다. 이들은 다시 남행열차를 타고 1,100km를 달려 정착지인 리오네그로 주 라마르께 읍에 도착했다.

그들이 간 길을 따라가 보았다. 승용차로 15시간이 걸렸다. 중간에 드론 촬영을 위해 길가 농장에 들렀다. 대초원의 바람 은 거셌다. 드론은 좀처럼 소 떼에 접근하지 못하고 바람에 <mark>밀렸다. 하성준 차</mark>장이 조종기를 들고 안간힘을 쓰는 사이 집 주인 호세 할아버지의 얘기를 들었다.





초기 이민자들을 맞은 건 호세 할아버지와 같이 순박한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먼 아시아에서 온 한인들을 반겼고 정착을 도왔다. 하지만 이민자들은 고된 노동과 잇단 농사 실패를 견뎌내지 못했다. 흙바람 부는 파타고니아의 벌판을 호미와 괭 이로 개간하겠다고 나선 것이 애초에 무리였다.

부에노스아이레스로 돌아간 이민자들은 빈민촌인 플로레스에 정착했다. 109번 버스 종점이 있었다 해서 지금도 한인들 사이에서 '109촌'으로 불리는 곳이다. 이들이 생계를 위해 뛰어든 일이 의류업이다. 유대인들의 하청 봉제

일을 하던 한인들은 직접 제품을 만들기 시작했고, 지금은 아르헨티나 의류업 매출의 절반 이상 을 점유할 정도로 성공했다.

그들은 한국전쟁에서 살아남은 세대다. 억척이 본능이고 생존이 목표였다. 게다가 당시 아 르헨티나에는 20세기 초 세계 5대 부자나라까지 갔던 영화의 기억이 남아있었다. 집집미 다 문 앞에 바구니(까나스또 canasto)를 두고, 먹다 남은 고기나 빵을 내놓았다. 배곯는 사 람이 없어야 한다는 건 가톨릭의 박애 정신이기도 했다. 동포들의 성공에는 그 배려와 온정 이 힘이 됐다.



쓰레기가 버려져 있는 까나스또

지금 그 까나스또에는 쓰레기만 담겨 있다. 무능한 군정과 매판적 자본, 부패한 정치가 국민들 의 인정마저 말라버릴 정도로 경제를 위기에 몰아넣은 탓이다. 인접국인 페루와 볼리비아 등지에서 쏟아져 들어온 불법이민 자들로 인해 치안도 불안하다. 아르헨티나 경제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지만 인접국의 사정도 그만큼 좋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동포들은 경제위기의 틈바구니에서 오히려 기회를 잡았다. 강력한 수입규제 하에서 의류 생산업으로 성공했 고, 특유의 교육열을 발휘해 자녀들에게 고등교육을 시켰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지금도 대학까지 공교육비가 무료다.

아르헨티나 동포 사회는 빠르게 2세 중심으로 넘어가고 있다. 전문교육을 받고도 수입이 많은 의류업에 종사하는 2세가 많지만, 상당수는 정치, 문화, 과학계에서 뚜렷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유럽 이민 중심이던 아르헨티나가 한국과 중 국, 인도 등 신흥 아시아 국가들로 눈을 돌리는 것과 시대적 흐름을 같이 하고 있다.

그들이 성장해가면서 한국과 아르헨티나의 관계는 더 깊어질 것이다. 광대한 영토에 풍부한 자원을 보유한 아르헨티나와 좁은 영토에 많은 인구를 가진 한국은 서로 나눌 점이 많기 때문이다. 연간 곡물 생산량 1억 톤인 농업대국과 식량수입국 인 공업국가가 서로 도울 일도 많다. 두 나라를 이어주는 3만여 명에 이르는 한인 동포들의 역할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승구 촬영감독

이태형 한국우주환경연구소장

YTN 웨더 & 라이프의 '별별 이야기' 2백 회 특집 프로그램〈신의 영혼, 오로라를 만나다.〉 (PD 배민하)가 지난 10월부터 11월 초에 걸쳐 시청자들의 큰 호응 속에 방송됐다. 머나먼 관측 장소에 가서도 '신의 선택'을 받아야만 볼 수 있다는 오로라를 직접 본 소감을 당시 기상캐스터로서 제작에 참여한 차현주 앵커에게 들어본다.

그이 말 구 '신의 숨결'이었다. 불현듯 까만 서브 스톰 한 방으로 날아가 버렸다.

밤하늘을 뒤덮은 초록 형광의 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었다. 오로라 서브 스톰은 우리가 로라는 빠른 속도로 장막을 넓혀갔다. 갑자기 하얗게 빛나 _ 옐로나이프에 머물렀던 일주일 내내 나타났다. [는 것 같다가도 이내 폭풍처럼 거세게 몰아쳤다. 이 경이로 에 우리는 방송 분량을 충분히 채우고. 운 빛의 향연을 보며 그저 "와! 와!" 하며 함성을 지르는 것 주쇼를 마음 놓고 감상하는 호사를 누렸 밖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어떤 이는 눈물을 흘리기도 _ 밤에는 오로라가 우리를 흥분시켰다면, 했고, 무릎을 꿇고 하늘 아래 머리를 조아리며 기도를 하는 _ 연 풍경이 우리를 감동시켰다. 옐로나이 사람도 있었다. 또 바닥에 쓰러진 듯 누워 오로라에 취해 그 타고 한 시간 남짓 이동하면. 유네스코 세기 저 하늘을 바라보고만 있는 사람도 눈에 띄었다. 그날 밤의 - 국립공원이 나온다. 사람의 손이 거의 닿지

마음이었다. 두려움 섞인 우리의 간절함을 하늘도 알았는 용한 폭죽을 터뜨렸다. 지, 올해 나타난 오로라 중 가장 강렬한 오로라가 우리를 반 겨 주었다. 태양 폭발이 일어난 후 태양풍의 충격파가 지구 바 오로라 '서브 스톰'이 출현한 것이다.

오로라는 그만큼 강렬했고 아름다웠다.

너무 힘들다. 직항은 없다. 캐나다 밴쿠버에서 에드먼턴. 거 기에서 또 한 번 비행기를 갈아야 도착하는 외딴곳이다. 경 유지에서 대기하는 시간까지 합한다면 가는 데만 꼬박 하루 가 걸린다. '이렇게까지 고생해서 굳이 보러 가야 할 만큼 가 줄 준비를 하고 있을지 모를 일이다. 치가 있는 걸까? 안 나타나 주면 어쩌지?' 라는 고민은 이

며 발광하는 듯하다가 이내 붉은 빛으로 타올라 머리 위를 해 준 가이드도, 옐로나이프 오로라 빌리지의 직원들도 이 휘휘 감았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커튼이 나를 포근히 감싸 - 례적인 일이라고 할 정도였다. 방송 욕심 많은 오로라 덕분

아름다운 자 경비행기를 나이 나하니 고의 자 연 환경을 간직하고 있는 이곳을 한국 방송사로는 우리가 간 곳은 캐나다의 옐로나이프라는 곳이다. 오로라는 _ 음으로 화면에 담았다. 깎아지른 듯한 산 아래로 끝도 없이 위도 65도~70도의 범위에서 가장 잘 볼 수 있는데, 이곳은 🛮 넓은 평원이 펼쳐지고, 그 사이로 보석처럼 호수들이 빛난 위도도 적합하고 비교적 맑은 날이 많아 오로라를 보기에 최 다. 신선이 있다면 주저하지 않고 이곳을 자신의 집으로 삼 적의 장소다. 그렇다 해도 오로라를 못 보는 경우가 많아서 을 것만 같았다. 우리는 나하니 국립공원 산장에서 하루를 우리 팀은 제발 제작비를 허공에 날리지 않게 되길 기도하는 목었는데, 이곳에서도 어김없이 밤에는 오로라가 하늘에 조

지금도 눈을 감으면 눈앞에서 오로라가 생생하게 춤을 춘다. 어떤 이는 내게 "오로라를 보려면 돈이 엄청 많이 필요하겠 자기장을 강타하면서 오로라를 더욱 강렬하게 만드는, 이른 지?" 라고 묻는다. 하지만 나는 그 질문에 돈보다는 오로라를 보러 떠나려고 마음먹는 '용기'가 더욱 필요하다고 말한다. 오 오로라는 온몸이 전율할 정도로 아름답지만 그만큼 보기도 - 로라는 여느 풍경처럼 그 자리에 가도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로라는 이런 불확실함 때문에 더 아련하고 신화적인 것이 아닐까? 큰 용기를 내야하기 때문에 어쩌면 오로라는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감격을 안겨



맹모삼천지교와 새 지국장, 그리고 빈자리

YTN 강릉지국에 온 지 10년하고도 3개월이 지났습니다. 다가 다시 별을 보며 강릉으로 돌아왔습니다. 맹자의 어머니처럼 세 번의 이사 끝에 지국 사무실은 구도 기사 쓰고 중계하고, 또 기사 쓰고 중계하고를 여드레 동심지를 벗어나 신도심지인 교동 택지에 안착했습니다. 휑했 안 무한 반복한 송세혁 선배, 그래서인지 송 선배의 흰머리 단 사무실 내부도 리모델링으로 제법 깔끔한 외형을 갖추게 가 눈에 띄게 늘어난 것 같았습니다. 보기에 안쓰러울 정도됐습니다.

초대 지국장인 정현교 지국장을 제외하면 1~2년 동안 잠시 부임했다가 돌아가곤 했던 지국장 자리가 이번엔 자체 승진으로 채워졌습니다. 5대 지국장, 송세혁 선배입니다. 하지만 취재기자 1명이 여전히 공석이어서 지국 인원은 6명에서 되레 5명으로 줄었습니다. 흑흑. 또 저의 애마였던 아날로그 중계차도 떠났는데, 그 빈자리는 작지만 강한 TVU라는 엄청난(?) 신무기가 차지했습니다.

인해전술을 무력화시키는 '일당백 열정'

대부분 지국처럼 인원이 적다 보니 지국원 개개인은 일당백의 열정으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항상 옆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선배들(김동철, 송세혁 선배)과 2년마다 바뀌지만 늘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후배들,제가 인복은 많은 것 같습니다. 서로 먼저 양보하고 상대방의견을 존중하며 협력하다 보니까 우리 지국은 정말 가족같은 분위기에서 신명 나게 일하고 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행사서 재확인한 '강릉지국의 힘'

지난 10월 말에는 전 지국원이 꼬박 여드레 동안 제20차이산가족 상봉행사 취재에 매달렸습니다. 거의 매일 새벽 5

어진 속초 한화콘도와 고성 동해선 남북출입사무소까지 갔다가 다시 별을 보며 강릉으로 돌아왔습니다.

기사 쓰고 중계하고, 또 기사 쓰고 중계하고를 여드레 동안 무한 반복한 송세혁 선배, 그래서인지 송 선배의 흰머리가 눈에 띄게 늘어난 것 같았습니다. 보기에 안쓰러울 정도였습니다. 대선배이지만 후배에게 시키기보다는 언제나 솔선수범하는 김동철 선배 역시 정보를 먼저 알아낸 뒤 타사보다 빨리, 더 좋은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오디오맨 은기는 항상 그림자처럼 조용히 맡은바 최선을 다하고, 말하지 않아도 먼저 알아서 행하는 센스 왕입니다. 운전담당 광택이는 딸에게 꽃신을 사다주겠다는 약속을 65년 만에 지키게된 이른바 꽃신 할아버지의 인터뷰를 하기 위해 돌격하다(?) 철퍼덕 넘어져 다리 인대가 늘어나는 부상에도 끝까지와이어리스 마이크를 놓지 않고 녹취를 사수했습니다.

저는 동해선 남북 출입사무소에서 이산가족 출입상황을 TVU로 중계하기 위해 테스트 하던 중 TVU가 말썽을 부려가슴 졸이며 중계에 참여했던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다행히 별문제 없이 지나긴 했지만…. TVU는 연애시절 와이프처럼 밀당의 고수인 듯합니다.^^

이번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 취재를 함께 다니면서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타사보다 훨씬 적은 인력으로 힘들지만 힘든 내색 없이 서로 믿고 서로 배려하며 내가 먼저 움직임으로써 타사의 인해전술을 무력화시킨 지국원 한 명 한 명의 모습, 멀리까지 지원을 나온 서울 본사와 춘천지국, 모든 선후배님 들 모두 정말 멋있고 자랑스러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9 등 도 가를지구은 달립니다. 화이팅!



돈을 끊임없이 부추기고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동인(動因)

은 인터넷과 디지털이다. 인터넷과 디지털이 우리가 누리

도전하는 자에게 기회가 있다!

우리가 속해있는 미디어업인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답하기 쉽지 않은 질문이지만 이 질문의 대답은 외국 미디어 기업의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엄청난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그들이지만 그들은 나름대로 그 변화의 동인이 무엇이고, 그것

이 가져올 Business impact가 무엇인지를 느끼

면서 기술적으로, 사업적으로 다양한 시도를 무수히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어떤 때는 무모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별 것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플랫폼 사업자는 플랫폼 사업자로서, 콘텐츠 사업자는 콘텐츠 사업자로

서 참 많은 시도를 하고 있다. 지금의 OTT가, 지금의 TV Everywhere가, 지금의 N 스크린 등이 이렇게 탄생되어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 이런 것들이 논의되어 개발하고 시도할 때에는 인터넷이나 디지털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진화하게 될 것인지 예측하기 어려웠지만, 다양한 시도를 하면서 준비했던 사업자에게는 지금의 Chaos가 기회가 된 것이고, 아닌 사업자는 엄청난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모바일이 우리 생활의 중심이 되고 있는 세상에서 모바일과 TV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를 고민하지 않으면 우리의 걸음은 한없이 뒷걸음쳐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비록 우리가 앞을 향해 나간다고 하지만 내가 걷는 걸음보다는 주위 환경 변화의 걸음이 더욱 빠르기에…. 그래서 '변화하지 않으면 변화당하게 될 것이다. (Change, or Be changed)'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어느 책에서 본 구절인데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Change has changed. The only thing that can be changed is everything."
('변화'도 '변화'한다. 모든 것은 '변화'한다.)



케이블 업계는 매년 주최해온 'The Cable Show'로 오케버리 '*** Show'를 올해부터 'INTX(Internet and Television Expo)'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행사를 치렀다. 케이블이라는 단어를 빼고 인터넷이라는 단어를 제일 앞에 쓴 것은 단순히 명칭만 바꾼 것이 아니라 미국 케이블 업 계가 미디어를 바라보는 시각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는 것을 의미한다. 즉, 업(業)의 본질이 바뀌고 있다는 것 을 깨닫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실제로 이런 본질 의 변화를 닦은 서비스 등을 출시하고 있다. 인터넷을 앞세 운 소위 스키니 번들 (Skinny Bundle:소수 채널 상품) 같 은 상품을 제공하고 유료방송업체 스스로도 인터넷을 통한 동영상 서비스인 OTT (Over The Top) 상품을 동시에 제 공하고 있다. 방송 서비스의 경우 기존 유료방송이나 자사 의 OTT 혹은 넷플릭스 같은 타사의 OTT를 시청자의 필요 에 맞는 것으로 택하되 자사 인터넷을 결합해서 선택하라 고 외치고 있다. 방송 사업자보다 인터넷을 제공 하는 통신 사업자로 고객이 착각하게끔 서

인터넷과 디지털이 몰고 온 도전

비스 우선순위를 바꾸고 있다.

시야를 우리 내부로 돌려보면 국내 미 디어 업계는 모두 다 힘들다고 아우성치고 있다. 그 막강한 지상파도, 한때는 유일한 유료방 송이었던 케이블 SO와 PP들도, 새로 출범한 종편도…. 이 런 현상은 미디어 업계가 오직 광고 시장에만 의존해서 생 기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광고 시장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 파이를 나눠 가지는 사업자들은 계속 새로 생겨나고 있 고, 또 한편으로는 미디어 산업 매출의 또 다른 큰 축인 가 입자들로부터의 수신료가 오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뿐 아 니라 미디어를 소비하는 행태에서도 큰 변화의 파도가 쓰 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는 것을 미디어 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이 느끼고 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헤매고 있 는 것이다. 실시간 방송을 보기 위해서 TV 앞에 앉아 있는 사람보다는 anytime과 anywhere에 any devices를 통해 서 시청하는 사람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길거리, 버 스. 지하철에서뿐 아니라 카페를 비롯한 어느 곳에서도 휴 대전화나 패드를 통해서 동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전 세계 미디어 업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Chaos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혼

26

27



<u>고민하다."</u>

박형일 팀장 | 기술국 기술기획팀

(Ultra High Definition)TV, 과연 먼 나라 의 이야기일까? 이미 UHD는 일반 소비자 제품이 생산되고 있다. 이를 방송에 적용하는 데 문제는 없 을까? UHD를 따라가야 하는가? 언제 어떻게 UHD를 적용 하는 것이 적당할까? UHD가 되면 모든 방송기술이 완성되 는 것일까? UHD 방송과 쌍방향(인터넷)과 3D TV나 홀로 그램은 전혀 무관할까? 적당한 콘텐츠 제작 장비는 어떻게 구성할까? 표준기술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을까? 시청자, 사용자의 Needs는 무엇일까? 얼마의 비용을 사용해야 적 정한 기술을 사용할 수 있을까? 더 효율적인 방법이나 기술 은 없을까? 기술기획팀은 이런저런 고민이 많다.

급변하는 기술을 극복해야 한다. 그리고 앞서가야 한다. 변 화하는 기술에 대해 적용이 잘못되면 결국 회사 경쟁력에 문제가 생긴다. 기술기획팀은 방송에 적합한 제품과 기술의 개발과 통합 및 적용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주요 업무이다. 새로운 기술과 제품은 잠재력도 크지만 그만큼 수용되기도 어렵다. 그러다 보니 항상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한다. 때문 에 사용자나 관련 부서와의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하며, 관 련 일을 진행하기 위해 서류작업도 많고 잡일도 많다.

기술기획팀은 YTN과 YTN 라디오 및 YTN DMB 등 자

회사 방송에 필요한 무선국 전파에 대한 관리와 인허가와 행정 업무도 담당한다. 최근 우리 중계차의 Microwave 5GHz 주파수를, 범국가적 차원으로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이에 대응하여 국가와 회사에 모두 유 리한 상황으로 협의하는 대외적인 일도 담당한다. 기술기획 팀은 이외에도 많은 일을 하지만, 사용자 중심의 기술, 업 무의 간소화. 변화하는 기술을 업무에 맞게 설계하고 이를 업무에 적용해서 지속적인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 술을 만들어주는 방법들을 생각한다.

'Stay Positive' 긍정적인 사고를 유지해야 하고. 'Don't let your dreams be dreams'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 세가 중요하다. 꿈만 꾸지 않고. 일에 대한 불만보다는 효 과적으로 일을 성사시키는 방법을 찾아야 결국은 일의 성공 을 볼 수 있다. 매사에 쉬운 일도 없지만, 어려울 것도 없다 는 것이 기술기획팀에서 일하는 방법이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를 항상 고심하고, 실행 하는 훈련이 몸에 습관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 팀이 끊임없이 공부하고 생각하고 실행하는 팀이 되도

록 사우들의 격려와 도움을 부탁한다.

이달의 자랑스러운 **YTN**인 상

금상 _ 러시아산 헬기 잇단 엔진 결함, 원인도 몰라



수상 소감 / 강진원 (사회부)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강 진 원 _ 사회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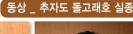
"엔진 결함 원인을 신속히 규명하고 안전사고를 막는데 이번 보도가 조금이나마

금상 _ 쇼트트랙 폭행 파문









김 문 경 부장 정치부

이 승현 정치부 최 민 기 사회부

수상 소감 / 이승현 (정치부)

"뉴스가 범람하는 시대, 뉴스를 이끄는 것은 여전히 YTN이란 것을 새삼 느끼게 해 주었습니다."

금상 _ 형사, 판사 등 수십 명 적힌 김일곤 메모지 발견 단독 보도







수상 소감 / 조은지 (스포츠부)

"특종상 받게돼서 얼마나 조은지~"

수상 소감 / 우철희 (사회부)

"지난달 강진원 선배께서 이끌어주신 헬기 결함 보도에 이어 이번 김일곤 살생부로 두 달 연속 금상을 수상하게 돼서 더 없는 영광입니다. 앞으로도 기대에 부응하는 YTN인이 되겠습니다."

호 카카오톡 제보 구축 및 운용으로 단독기사, 화면 방송 공로



유 영 식 차장 _ 영상아카이브팀

수상 소감 / 유영식 차장 (영상아카이브팀)

"시청자가 카톡 대화창으로 보내주는 한 줄짜리 제보도, 한 컷의 영상제보도 소중하게 받을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다면 YTN 뉴스의 한 축이 될 것 으로 믿고,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ytnjebo' 카톡친구 널리널리 알려주세요.'

YTN 모바일 제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 공로





권 준 기 팀장 _ YTN 플러스 디지털뉴스팀

서 정 호 팀장 _ YTN 플러스 PJT팀

수상 소감 / 서정호 (YTN 플러스 PJT팀)

"모바일 제보시스템의 구축은 YTN PLUS의 디자이너, 프로그래머 그리고 모바일 PD 등이 함께 아울려 만든 서비스입니다. 앞으로 온라인과 온에어 사이의 협업과 공유, 나아가 공감이 긴밀하게 일어나야합니다. 그 협업에 YTN의 미래가 달려 있기 때문

9/10월의 자랑스러운 YTN인 상 선정 이유 _ 류제웅 팀장 (기획조정실 인사팀)

9월 특종상은 금상에 사회부 강진원, 우철희, 영상취재1부 이승준 기자가 취재한 〈러시아산 헬기 잇단 엔진 결함〉이 은상에는 〈추자도 돌고래호 실종 보도〉가 선정됐습니다. 헬기 보도는 치밀하고 완성도 높은 취재가 높이 평가됐고 돌고래호 건은 제보를 바탕으로 신속 대응한 점이 인정됐습니다. 공로상 부문은 엄격한 기준으로 신청 건들이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10월 특종상 금상은 스포츠부 조은지 기자의 〈쇼트트랙 폭행 파문, 빙상연맹 조사〉와 사회부 우철희 기자의 〈김일곤 살생부 메모지 발견〉 보도가 공동 수상했습니다. 두 건 모두 제보를 단서로 집요한 취재 끝에 일궈낸 특종으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점이 높게 평가됐습니다.

공로상은 영상아카이브팀 유영식 차장의 〈카톡 제보 운용을 통항 단독 기사 활성화〉와 YTN플러스 파견 권준기 기자와 서정호 사원의 〈YTN 모바일 제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이 각각 선정됐습니다. YTN 제보시스템을 차별화하면서 한 단계 격상시켰다는 공로가 인정됐습니다.



Street Landscape-8911, Mezzotint, 30×40cm, 1989

Night Landscape-20082, Mezzotint, 60×30cm, 2010

김승연의 야경, 익숙한 것의 낯섦 -일상의 재해석

홍경한 미술평론가 | 경향아티클 편집장

독일에서 발명된 메조틴트(mezzotint)는 직각요판(直刻凹版) 기법의 동판화이다.

인그레이빙(engraving)이나 드라이 포인트(dry point)처럼 예리 하고 날카로운 철필 등으로 직접 판에 새긴다는 점에서 호형호 제하지만, 화학약품으로 부식시켜 도상을 만드는 부식 동판화 제판기법의 일종인 에칭(etching) 및 애쿼틴트(aquatint) 등과는 다르다.

제작과정을 보면, 일단 로커(rocker)라는 톱니 모양의 예리한 날 을 지닌 조각도로 미세하고 작은 구멍을 수없이 만들고, 스크래 퍼(scraper), 버니셔(burnisher) 등의 도구로 거친 부분을 제거하 면서 묘사와 더불어 명암을 넣는다. 이때 긁어낸 부분은 밝음이 되고 남겨진 부분은 어둠으로 남는다. 이후 스퀴지(squeegee) 라는 블록을 이용해 잉크를 밀어 넣어 프레스기에 넣고 찍으면 하나의 작품으로 탄생한다.

그러나 이렇듯 글로 몇 줄 쓰는 것이야 쉽지, 메조틴트는 제작방 법 면에서 매우 엄격하고 다루기에 순탄치 않을 뿐만 아니라 긴 시간까지 요구하는 까닭에 다루기가 결코 만만치 않다. 그야말 로 인내심의 끝자락에서야 비로소 제 모습을 드러내는 예민하고 까다로운 판법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메조틴트는 아무리 작은 크기도 한 달 이상은 꼬박 매달 려야 한다. 딱딱한 동판에 아주 미세한 홈을 내는 것, 그 자체만 으로도 내구(耐久)의 극한을 동반한다. 때문에 성향이 맞지 않으 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이 메조틴트다.

세하다. '중간 색조'를 뜻하는 이탈리아어 'mezza tinta'를 어원 으로 할 만큼 부드럽고 흐린, 미묘한 톤의 풍부한 변화는 물론, 사진보다 더 사진 같은 극사실적인 묘사에서도 따라올 판법이 없다. 이것이 바로 작가 김승연이 메조틴트를 고수하는 이유요, 오랜 시간 메조틴트를 고집하는 배경이다.

김승연은 1980년대부터 주로 거리나 도시의 밤 풍경을 메조틴 트 판화로 제작해 오고 있다. 주변에서 흔히 접하게 되는 일상적 인 것들, 익명적인 것들을 포착해 고유의 풍경으로 흡수-재해석 하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중에서도 거리풍경을 옮긴 (Street landscape〉와 도시 야경을 담은 (night landscape)는 그의 판 화세계를 대표하는 연작으로 꼽힌다. 이 작품들은 대개 어느 이 름 없는 거리에 자리를 잡은 클래식한 건물들. 유리알처럼 물에 반사된 강변과 희미하게 유동하는 도시의 불빛, 고즈넉한 골목 길을 지키며 잠들어 있는 가로등, 분주한 삶을 대리하는 자동차 들의 빛과 움직임 등을 일일이 손으로 채워낸 것들이다.

김승연이 이러한 주제에 천착하는 이유는 단지 거리나 도시의 이미지를 복원하려는 것에 있지 않다. 공간과 국적을 떠나 표현 의 대상을 무작위로 축출하기에 특정한 장소성을 띠지도, 형상 자체의 문제에도 귀속되지 않는다. 다만 그는 '익숙한 것의 낯설 게 하기'와 '시각 이상의 시각'에 방점을 둔다. 즉, 일상에서 쉽게 마주하는 거리나 도시풍경을 극도로 섬세하게 표현했을 때 느낄 수 있는 타자의 시각적 감흥과 상황에 대한 고찰, '순간적 지연' 에 의한 의외성과 가변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메조틴트 특유의 깊고 풍부한 맛은 그 어떤 판화보다 우 그의 그림들은 매우 정서적이며 서정적이기도 하다. 제작 프로



Night Landscape-20052, Mezzotint, 60×30cm, 2007

세스만 보면 다분히 이성적이고 차갑기 그지없으나 감성적이거 나 이상적인 여백까지 힘껏 흡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매력이 있다. 특히 그림 전체를 지배하는 어둠 속에서 뽀얗게 피어나는 안개 같은 이미지들은 명징하게 규정되는 문명의 화려함이 아 닌, 도시의 망실된 이미지를 소환한다. 'YTN 서울타워'를 옮긴 작품을 비롯해 일본의 어느 거리 밤풍경을 묘사한 작품 등이 같 은 모두 같은 맥락이다.

한편 김승연은 한국에서 보기 드물게 메조틴트 기법을 잇고 있 는 작가이다. 대학에 판화과가 생겨나기 시작한 80년대 후반만 해도 너도나도 메조틴트에 매달렸으나 매 순간마다 급변하는 예 술흐름 앞에서 너무 다루기 어렵고 절대적인 끈기가 필요한 이 오목판화의 인기는 이내 시들해졌다. 그러나 김승연은 지금까지 수십 년을 진득하게 자신만의 언어로 치환한 채 메조틴트의 역 사를 쓰고 있다. 판화라는 장르 자체가 흐릿한 등잔과도 같은 오 늘날, 판화의 가치를 이끌고 있다.



김 승 연 Kim Seungyeon (1955~)

홍익대학교, 대학원 (BFA, MFA, 서양화) 1979, 1982 / 미국 뉴욕주립대학 대학원 (MFA, 서양화) 1985

현재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판화과 교수, 한국현대판 화가 협회 회장

개인전 30회 서울, 뉴욕, 동경, 류블랴나, 시드니, 로스앤젤레스,러시아 등 에서 발표 (1984-2015)

국제전 수상 제20회 류블랴나 국제판화 비엔나레 (1등상 수상) -류블랴니 슬로베니아 1993 / 제11회 독일 국제판화 트리엔날 (우수상 수상) -후러 텐, 독일 1996 / 제14회 이탈리아 비알라 국제판화 트리엔날 (대상 수상 비알라. 이탈리아 1999 / '2003 비톨라 국제판화 트리엔날 (1등상 수상 -비톨라. 마케도니아 2003 / Edmonton Print International (알버타미술관 상) -에드먼턴, 캐나다 2008 / 2011 국제메조틴트 훼스티발, (전통판화성 수상) 예카테린브르크, 러시아 2011 등 다수 수상

/ 제주 도립미술관 / 영국 옥스퍼드, 현대미술관 / 미국 뉴욕, 시립 미술관 / 일본 오사카, 마이돔 미술관 / 모나코, 국립 판화미술관 / 이탈리 아 밀라노, 시립미술관 / 오스트리아 체코 프라하, 국립현대미술관 / 중국 심천 관란미술관 등 다수 소장

Night Landscape, Tokyo-20002, Mezzotint, 60×30cm, 2002







시오노 나나미의 책 〈르네상스의 여인들〉에는 정쟁과 음모가 판치는 르네상스 시대를 살았던 여인들의 이야기가 나온다. 뛰어난 지략으로 자신의 삶을 지켜내는 여성, 주어 진 삶에 만족하는 여성, 남성들의 권력다툼에 휘둘리는 여성 등 운명 앞에서 판이한 선 택을 한 여성들의 이야기가 나온다.

올해로 입사 15년 차 이광연 YTN 앵커. 르네상스 시대 귀부인으로 변신해 암흑기로 불 리는 중세에서 인간 중심의 근대로 역사를 움직인 르네상스 시대를 표현하고자 했다.

Q. 르네상스 시대 귀족 부인으로 변신한 소감은?

제의를 받고 잘 소화해 낼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섰어요. 귀족, 평소에는 꿈도 못 꿀 단어잖아요. 그런데 막상 촬영을 해보니 새로운 나를 만나는 기분이랄까요? 신기 하기도 하고 가슴이 뛰더라고요. 촬영 내내 정말 즐거웠어요.

Q. 르네상스 시대에 태어났다면?

시오노 나나미의 책 〈르네상스의 여인들〉을 보면, 남성의 세계에 뛰어들어 자신만의 색깔을 내는 여성들이 등장해요. 저도 그 시대 에 살았다면 대담한 영혼을 가진 여성으로 주체적인 삶을 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좀 거창한가요? ^^

Q. 앵커 선배로서의 나

제가 여성 앵커로는 앵커실 내에서 최선임자급에 속해요. 선배라면 권위도 있고 조금은 어려운 존재일 필요도 있겠지만, 저는 후배 들이 편안하게 다가올 수 있는 '대화 가능한 선배'가 되고 싶습니다. 후배들의 마음도 보듬어 줄 수 있는 선배요.

Q. 앵커로서의 역량을 쌓기 위한 노력은?

사회 변화와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 많이 보고 많이 생각하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앵커를 '검색창'이라고 생각해요. 시청자들이 뉴스를 보면 서 세상을 읽으니까요, 검색창이 부실하면 잘못된 정보를 얻게 되잖아요? 그래서 탄탄한 검색창이 되기 위해서 늘 긴장하고 있습니다.

Q. 롤 모델이 있다면?

정해놓은 롤 모델은 없어요. 굳이 이야기하자면 '일상에서 만나는 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일하는 선후배, 가족들, 친구들, 이런 일 저런 일로 만나는 사람 들이요. 누구에게나 배울 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 어느 한 사람을 따라가기 보다는 여러 사람의 좋은 점을 발견하고 배우려고 노력합니다.

Q. 방송 중 기억에 남는 일화는?

'주간 돌발영상'을 진행할 때 특집으로 '국회의원 화해시키기'를 한 적이 있어요. 국 회 상임위원회에서 언성을 높이고 대립하는 의원들을 찾아가서 화해를 시키는 콘셉 트였죠. 대부분 기분 좋게 화해를 했는데 녹화가 끝나고 나서도 절대 화해를 못하겠 다던 의원이 몇 명 있었어요. 기회가 된다면 화해 100% 성공률에 도전하고 싶어요.

Q. 앞으로 진행하고 싶은 프로그램은?

방송 경력이 늘어나고 한 해 한 해 나이가 들수록 사람과 소통하는 일이 참 매력적 이고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더 숙련 과정을 거치고 나면 출연자와 시청자 를 감동으로 이어주는 인터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테니스를 잘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테니스를 하는 것이다.'

그래픽 팀 오재영 차장은 미국의 전설적인 테니스 선수 존 매켄로의 명언을 몸소 실천 하고 있다. 주중에도 코트로 퇴근을 하고 주말과 휴일에도 별다른 일정이 없으면 꼭 테 니스를 친다는 오재영 차장. 그를 푹 빠져들게 한 테니스의 매력은 무엇일까.

"어느 운동이나 다 그렇겠지만 자기만족이 대단히 큰 운동이에요. 격한 운동이라서 한계를 극복하고 목표를 이뤘을 때 그만큼 희열을 느끼게 되죠."

대학 시절 친구의 권유로 처음 라켓을 든 후, 졸업을 하고 사회생활 하느라 운동은 엄두도 못 냈던 그는 결혼과 동시에 테니스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 신혼집을 구하기 위해 찾은 아파트에서 테니스 코트를 발견한 것.

"운명적으로 그 집을 계약하게 되었습니 다. 신혼 때부터 테니스를 쳤으니까 보통 아 내들이 그렇듯 운동하는 남편을 달가워하지는 않 았죠.^^ 하지만 건강도 지키고 이만큼 건전한 여가도 없으니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아요."

라켓과 공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운동처럼 보이지만 테니스는 입문하기 까다로운 종목이다. 상당기간 레슨 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취미로 운동을 하면서 설움(?)을 받았던 시절도 있었단다.

"초보 때는 경기 자체가 안 돼서 상대를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어느 정도 실력을 쌓아야지만 코트에 나 가 제대로 된 상대와 제대로 된 게임을 할 수 있죠. 조금 거창하지만 혼자만의 외로운 싸움에서 승리해 야 진정한 테니스인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올해로 코트에 선 지 16년. 지역 대회는 물론 전국 대회까지 다수의 동호인 대회에 출전했다. 남자 테니 스 동호인 대회는 금배, 은배, 동배(신인)로 급이 나누어지는데, 2014년에는 노원구협회장기 동배부 개 인전에서 우승했을 정도로 수준급의 실력을 자랑한다. 하지만 늘 배운다는 자세로 라켓을 든다.

"테니스 기술은 뭐 하나 쉬운 게 없어요. 그 중에서도 컨디션 조절이 가장 어렵죠. 대회에서도 5:0으로 리드하고 있어도 잠깐 방심하는 사이 역전 당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더 열심히 연습해야겠다는 생각 이 드는 동시에 겸손해져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체력도, 정신력도 강하게 만드는 테니스의 매력이 그를 코트에 서게 한다.

"동배에서 우승을 했으니 다음은 은배부 우승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하지만 수상하려고 운동을 하는 건 아니에요. 정신없이 게임에 집중해서 땀 흘리고 웃다보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모든 걱정이 사라지 죠.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진정 즐기는 사람이 챔피언이라고 했던가. 그의 스트로크에서 지켜보는 사람을 빠져들게 만드는 힘이 느껴졌다.



〈목종: 당천 살인기〉로보는 특종의 심리학

최광희 영화평론가

카툰 : **최재용** 차장 | 홍보·시청자팀



이 넘치는 기자 들은 언제나 특종을 노린다. 특종, 영어로 'Scoop' 또는 'Exclusive'라고 말한다. 기자들의 세계에서는 특종이지만, 수용자들에게 전 달될 때는 '독점' 혹은 '단독' 이라는 표현으로 포장된다. 특 종이란 사실상 언론사 간 경 쟁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자유주의 언론의 필연적 욕망 이다. 특종을 통해 자사가 타 언론사보다 훨씬 더 큰 취재 력을 가지고 있다는 방증을 과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 부분의 언론사는 소속 기자들 에게 뭔가 굵직한 특종을 기 대하게 되며, 이것은 은연중에



기자들의 직업적 욕망으로 내면화된다. 문제는, 특종에 대한 과도

한 욕망이 자칫 치명적인 오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22일 개봉한 영화 〈특종 : 량첸 살인기〉(감독 노덕, 주연 조정석)에도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방송국 사회부 기자 허무혁 은 광고주의 심기를 건드리는 기사를 쓴 탓에 사실상의 대기 발 령을 받는다. 아내와도 이혼 위기에 처한 그는 뭔가 회심의 반전 을 노려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벌어진 연쇄 살인범과 관련한 결정적인 제보를 받는다. 제보에 힘입어 그는 연 쇄 살인범으로 추정(!)되는 이의 집에 몰래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 서 연쇄 살인 혐의를 강력하게 뒷받침할만한 메모를 발견하게 된 다. 주저 없이 그 메모를 회사로 가져간 허무혁 기자. 회사는 시쳇 말로 '왕건이'를 건졌다며 지체 없이 이를 톱뉴스로 다룬다. 허 기 자는 단박에 회사의 영웅으로 도약하게 되고, 회사는 그에게 후속 취재를 맡긴다. 그러나 흥분은 거기까지. 후속 취재의 와중에 허 무혁은 자신의 특종이 번지수가 틀렸음을 알게 된다. 회사의 엄청 난 기대감 때문에 기사가 오보였음을 고백할 수도 없는 상황, 결 국. 그는 자신의 특종 행진을 이어가기 위해 해서는 안 될 조작 기 사를 내보내기로 결심한다. 아이러니하게도 허 기자의 소설 기사 는 진짜 연쇄 살인범을 자극하게 되고, 허무혁은 자신이 만들어낸 거짓말 기사 때문에 범인을 대면하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맞 영화〈특종 : 량첸 살인기〉 는 물론, 기자라는 직업과 언 론 현실을 영화적 과장을 통 해 풀어가고 있다. 실제 언론 현장에서는 영화처럼 허 기 자가 입수한 메모가 누군지 도 모르고 잡히지도 않은 연 쇄 살인범이 실제로 작성한 것인지, 최소한의 확인 과정

이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 가 풍자하는 언론 현실은 관

도 거치지 않고 보도되는 경

우는 드물 것이다. 오보가 연

쇄 살인범을 자극해 실제 범

인을 만나게 되는 과정 역시

영화의 흥미를 돋우기 위해

설정된 것일 뿐이다.

객들에게 꽤나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 영화가 풍자하는 지점은 허 무혁이라는 일개 기자가 아니다. 타사와의 시청률 경쟁에서 우위 를 점하고자 하는 언론사의 과욕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둔갑 시키고는, 특종 기자, 사실은 오보 기자에게 계속 앞선 오보를 정 당화하는 오보를 만들어낼 것을 강요한다. 이 영화의 주제 의식이 함의하는 바는 영화 속 보도국장의 말에 상징적으로 실려 있다. "진실? 진실은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야. 진실은 시청자들이 알 아서 찾아야지. 우리는 다만 그들이 보고 싶은 걸 보여줄 뿐이야." 나는 〈특종: 량첸 살인기〉가 스릴러로서는 허술한 플롯을 가지고 있지만, 풍자극으로서는 비교적 성공적이라고 봤다. 언론은 수용 자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럼에도 언론사간의 시청 률 경쟁은 가짜를 진짜로, 사실이 아닌 것을 진실처럼 만들기 일 쑤이고, 그런 가운데 수용자들의 판단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 게 된다. 시청률이라는 물신(物神)은 방송 언론으로 하여금 사회 적 현상을 보여주는 다양하고도 박진감 넘치는 전달 방식을 고안 해내 시청자들이 최대한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설계하게 끔 만든다. 여기에 의미 있는 팩트를 견인해 수용자들이 세상과 사회에 대해 최대한 바람직한 판단을 할수록 도와줘야 하는 기자 정신이 개입할 여지가 있을까?

시청률의 왕도는 기자가 '기자' 다울 수 있을 때 얻어질 수 있다.



20c **21**c



기억풍경 신당동

근래에 우리로부터 소원해진 것 중에 가장 아쉬운 것은 골목이다

도시재개발로 인해 골목은 車道와 人道가 되고, 우리의 편리함을 위해 자동차 주차장이 되었다.

골목은 우리의 기억에만 있는 풍경의 시작점이다.

골목은 어린 시절 우리의 놀이터이고, 천국이었다.

학교를 다녀오면 가방을 거의 던지다시피 마루에 팽개치고 달려나갔던 곳. 거기엔 '친구'라고 바뀐 '동무'들이 언제나 있었다.

말뚝 박기, 구슬치기, 딱지치기, 팽이 놀이, 자치기, 다방구,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리고 계집애들은 고무줄놀이로 계절 따라 놀이를 바꿔가며 즐기던 그곳. 겨울에 구슬치기로 손이 터서 피와 진물이 나도록 쓰려도 아픈지 모르고 즐거웠던 그곳. 이제 어디서도 그런 모습을 볼 수 없다.

흔치 않던 빨간 벙어리장갑 끼던 윗집 얼굴 하얀 아이, 담 너머로 만 빠끔히 보였던 그 얼굴. 같이 하고 싶어하는 그 맘을 알지만 그

김정일 | 사진가

前 KBS미디어 출판사진팀장, 멀티미디어 팀장, KBS교육아카데미, 글로벌 사업부, 중앙대학교 능력개발원 사진 아카데미 출강 현재 프리랜서 사진가로 활동 (a6543119@hanmail.net)

아이의 호랑이 할머니가 무서워 아무도 같이 놀자 하지 못했다. 우리는 가끔 자기가 뛰놀던 골목을 찾아가 보게 된다. 이미 없어 져 버려 놀라고, 있더라도 이렇게 작고 좁았었나 놀란다. 지금 보수층, 기득권이라 불리는 50대 후반 이후 세대는 이와 거의 비슷한 생활 환경에서 자랐다.

그들은 여러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 골목에 우뚝 솟은 마천루에서 살고 있다.

자기의 추억을 깔고 그 위에서 겹겹이, 층층이, 켜켜이 신화처럼 만 느껴지는 기억으로, 아니면 그것도 거의 잊고 살고 있다. 발전은 거저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런 추억과 그때 가졌던 생각을 모두 주고 얻어진 것이다. 이제 사진 속에만 있는 저 놀이터 풍경, 어린 시절 좋았던 추억 으로 남아 신화처럼 느껴지는 골목풍경, 그래도, 가끔은 그때 같 이 지냈던 그들이 궁금하다.

그리고 '잘 있니?' 가끔 확인하고 싶어진다.

찰나적인 가리봉동 낭반

최민호 | 사진가

중앙대학교 사진학과 졸업 前 ㈜제일기획, ㈜커뮤니케이션포토 현재 대학출강, 잡지, 출판, 레코드 자켓 등 프리랜서 사진가로 활동

결혼해서 해 출생 후 신고 의무기간인 3개월

동안 성명학책 세 권을 독학한 적이 있다. 이름이 어떻게 구성된다는 내용과 함께 이름으로 사람의 운명도 결정된다는 좀 황당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모르면 모를까 책 내용을 알고 나면이름을 함부로 지을 수 없게 된다. 물론 사람의 이름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등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책에서는 주장한다. 성명학에서 강조하는 작명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발음이다. 그 다음은 획수다. 그런 의미에서 '가리봉동'이라는 이름의 가병움은 현재 이 동네가 처한 상황과 닮아있다고 얘기한다면 좀지나친 비약일까? 가리봉동 일대를 돌아보면 여기가 한국인가심을 정도다. 우리가 배운 한자 실력으로도 읽을 수가 없는 중국본토에서 쓰는 간체자로 적혀있는 간판이 즐비하다. 길에서 들리는 목소리도 억센 옌볜 사투리와 중국말이 뒤섞여 있다. 중국에서 사업하다가 들어와 있는 친구를 만날라치면 친구는 어김없이

이 주변에 약속을 잡는다. 하지만 중국말과 글에 익숙한 그 친구가 아니면 도대체가 혼자서 식사를 주문하기도 여의치 않다.

그러나 상가 지역을 벗어나서 본격적인 주거지역으로 들어가면 얘기는 좀 달라진다. 대부분 다세대주택으로 이뤄져 있는데, 아파트에 익숙해 있던 나에겐 제법 사람 냄새도 나고 사진에서처럼 방역소독차라도 지나가면 영락없이 내 어릴 적 그랬던 것처럼 아이들이 여기저기서 뛰쳐나온다. 칙칙한 회색빛 콘크리트 골목이 삽시간에 잠깐이지만 낭만적인 골목으로 변한다.

많은 한국인이 이미 이 골목을 떠나갔지만, 뒤를 이어 중국에서 건너온 조선족 동포들이 그 옛날을 재현하고 있다. 우리의 삼사 십 년 전의 모습을 다시 경험하고 싶다면 이 거리를 한번 걸어봄 직도 하다.

물론 좁은 한국 땅에서 해외에서 이주해온 이들이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은 땅이 큰 다른 나라와는 비교가 안 되리라는 시각도 견지하며 이 동네를 둘러보길 강권한다.







미디어환경 변화에 따른 뉴스 트랜드 이해 특강 윤종수 / 9.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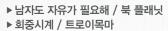












- 우장균 팀장 (웨더라이프국 편성제작팀)

NOTICE BOARD

▶배성준, 김주영, 이형원, 이승준 〈'인분 교수 사건' 연속 보도〉 BJC 방송기자클럽 2015년도 3분기 보도상 뉴스 부문 선정 / 10월 8일 ▶조은지 〈'쇼트트랙 폭행파문…빙상 연맹 조사 중'〉 한국체육기자연맹 3분기 체육기자상 보도부문 수상 / 10월 26일 ▶한동오, 김평정, 박정호, 홍성노 〈국민신문고 - 두 줄 서기 캠페인 폐지〉 9월 방송기자상 기획보도부문 선정 / 10월 27일





YTN과 말로하는전화 1636이 함께하는 지역경제 살리기

지역 특산물 50가지 품목을 선정하여 YTN에서 광고하고, 말로하는전화 1636에서 판매해 드립니다.

지역경제 살리기 개방자치단체는 캠페인 신청바랍니다

말로하는전화 1636 전속모델 2014 미스코리아 眞 김서연